

# 프 로 그 램

구 분	시 간	소요	내 용	진 행
등 록	13:30~14:00	30분	○ 참석자 등록	
개 회	14:00~14:10	10분	○ 개 회	이용원 (월간토마토 편집국장)
			○ 내빈소개 - 정기현/대전광역시의회 의원 ○ 인사말 - 김인식/대전광역시의회 의장	
주 제 발 표	14:10~14:30	20분	○ 주제발표 - 하태욱/건신대학원대학교 교수	정기현 (대전시의원)
토 론	14:30~15:10	40분	○ 지정토론 - 김현주/의정부여자중학교 교사 - 성광진/대전복수고등학교 교사 - 이병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팀장 - 최선희/대전광역시동구청소년자연수련관 수련팀장	
제 언	15:10~15:30	20분	○ 제언 - 권선희/목원대학교 교수	
자 유 토 론	15:30~		○ 방청객과 질의응답	
폐 회			○ 폐 회	

# 인 사 말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여 주신 내빈 여러분과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은 현재 학교교육에서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여행은 이러한 입시와 관련된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과의 여행이나 친구와의 여행에서 관계회복도 이루어지고 더 많은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사태 이후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안전이 대두되고 있고, 세월호 사태가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학여행중에 발생이 되면서 전국의 많은 학교들이 수학여행과 같은 교육여행을 중단하거나 축소되었습니다.

여행은 학생들에게 주는 이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건 사고가 생길때마다 여행에 대한 안전조치가 강화되면서 여행을 제한하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유익한 여행을 통해 지역, 사람, 관계를 통한 성장이 지속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적이면서도 안전한 여행이 되도록 어른들의 관심과 투자가 우선적으로 갖춰져야 할 것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여행은 만남을 통해 만드는 협동학습입니다. 여행이라는 협동학습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여행 지역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되고, 편견을 깨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안전한 교육여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여행을 실시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5. 9. 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정기현

# 목 차

## □ 주제 발표

---

### ○ 안전한 교육? 교육을 위한 안전! .....3

- 하태욱 / 건신대학원대학교 대안교육학과 교수

## □ 지정 토론

---

### ○ 스스로 계획하고 함께 만드는 여행 ..... 13

- 김현주 / 의정부여자중학교 교사

### ○ 대전지역 수학여행의 실태와 개선방안 ..... 21

- 성광진 / 대전복수고등학교 교사, 대전교육연구소 소장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외체험학습 지원에 대하여 .... 27

- 이병진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팀장

### ○ 대전지역 학교 밖 여행의 실험과 의의 ..... 31

- 최선희 / 대전광역시동구청소년자연수련관 수련팀장

## □ 제언

---

### ○ 변화를 창조하는 교육경험으로 공정여행 ..... 37

- 권선필 / 목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주 제 발 표

**안전한 교육? 교육을 위한 안전!**

**-여행: 배움의 도전을 보장하는 새로운 틀을 위하여-**

하 태 욱

(건신대학원대학교 대안교육학과 주임교수)



## 안전한 교육? 교육을 위한 안전!

하 태 욱 (건신대학원대학교 대안교육학과 주임교수)

여행이란 무엇인가? 문학평론가 우찬제(1995)는 인간이 ‘던져진 존재(Geworfenheit)’라는 하이데거의 표현을 받아 이렇게 말한다. ‘인간이 던져진 존재라면, 그것은 다름 아닌 길 위에 던져진 존재일 것이다. 그것도 텅 빈 길 위에 <길 잃은 별(Irrstern)>처럼 던져졌을 터이다. 이렇게 던져진 상태에서 인간은 길을 열고 길을 채워 나가야 한다. 그것은 인간 삶의 본질에 값한다. 길찾기 혹은 길트기로 이어지는 여로가 곧 인간 삶의 행로인 것이다. 자기 길을 찾기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우리 삶의 대부분은 구성된다.

그리고 인간 삶의 진정한 가치는 길 위에서 비롯되고, 길 위에서의 방황과 번뇌 속에서 발견되고 형성된다.’ 이 고통(Travail)의 경험이 바로 여행의 속성이다. 그러므로 프랑스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의 책 제목처럼 우리는 <여행하는 인간>일 수 밖에 없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움직이는 존재(動物)다. 어디로 향할 것인가? 막막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 여행이 정처없는 떠돌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행(旅行)이란 어느 방향(方)으로 사람(人)이 움직임(行)이니 우리가 인지하건 인지하지 못하건 간에 어디론가 향한다. 그 움직임은 곧 변화다. 그 변화를 의도적으로 이끌 때 우리는 그것을 ‘교육’이라고 부른다. 그러니 여행은 가장 오래된 형태의 교육이다.

우리는 수렵채취의 시대에서부터 여행을 통해 다음 세대들에게 그동안 쌓은 지식과 지혜,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헤쳐 나갈 용기와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가장 오래된 여행의 기록은 고대 이집트의 신전순례라고 한다. 순례자들은 신전을 도는 여행을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한 배움을 구했을 것이다. ‘도야’라는 측면에서 교육과 여행이 보다 본격적으로 결합된 것은 고대 그리스의 올림픽 참가를 위한 여행이었다. 이 시기가 오면 그리스는 모든 전쟁을 멈추고 선수들이 안전하게 올림피아로 여행할 수 있도록 배려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엄중한 처벌이 따랐다고 한다. 휴전기간도 처음에는 올림피아 제전이 열리는 한 달에서 출발해서 점차 늘어나다가 결국에는 귀향까지 배려하여 석 달까지 되었다. 이 기간 동안 선수들은 올림피아로 여행하면서 스스로를 연마하는 기간으로 삼았다. 로마 카톨릭이 서구세계의 삶을 관장하던 중세에는 성지순례가 있었다. 나중에는 종교 부패의 원흉으로 지탄받기는 했지만 그 근본적인 목표는 바로 여행을 통해 신에게로 다가가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었다. 보다 본격적인 교육행위로서의 여행은 그랜드투어라고 불리는 17~18세기 유럽 귀족들의 자녀교육이었다.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유럽 곳곳의 귀족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문화의 중심이었던 로마까지 여행하고 돌아와 새로운 중심으로 서기를 원했고 이를 지원하기에 아낌이 없었다. 이를 훨씬 앞서서 우리에게도 신라 화랑들의 수련방식이 있다. 심산유곡을 여행하며 문무와 풍류를 함께 닦았던 기록은 여전히 우리 문학과 역사의 중요한 유산으로 남아있다.

이렇듯 여행이 가장 오래된 교육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교육목표는 비교적 불분명하게 남아있다. 이는 여행이 특정한 교육목표를 구체화하기 어려운 요소들을 몇 가지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여행을 통한 교육은 매우 통합적이다. 그 안에는 여행목적지라는 목표지점 이외에도 수많은 유무형적 배움과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교육과정이 될 수 있는 통합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통합성이 구체성을 결여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더구나 오늘날처럼 학문이 세분화되어있는 현실에서 여행과 같은 통합적 교육방식은 오히려 그 어느 쪽의 영역도 아니기에 세분화된 연구고찰이 결여되기 쉽다. ‘교육여행’, ‘수학여행’, ‘체험학습’ 등을 검색어로 자료들을 검색해보아도 여행에 대한 교육적 성찰을 천착한 질 높은 국내 연구물을 찾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연

구들은 운영실태, 인식/선호도, 안전성의 주제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여행목적지라는 목표지점 이외에는 다른 모든 것들이 불분명해짐으로써 그 외의 교육적 가치가 모두 두리 문실하게 처리되고 있다. 즉, 목표지점을 다녀온다는 목표 지향적 행위가 지나치게 강조된 나머지 그 안에서 교육적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천하기 힘든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고 없이 수학여행을 다녀온다면 그것으로 족한, 여행 자체가 교육목적이 되었다.

그렇다면 여행의 교육적 가치는 무엇인가? 우선 여행은 학교와 교실이 갖는 ‘안(실내)’의 한계를 뛰어넘어 ‘밖’으로의 교육 공간적 가치를 갖는다. 근대적 교육담론은 이성과 사고의 공간인 ‘안’과 신체와 감정의 공간인 ‘밖’을 명확하게 구분하게 되었다. 또한 ‘밖’은 ‘안’과의 연계성이나 통합성을 바탕으로 고유하게 존재하기 보다는 부차적이고 보조적인 영역으로 전락하게 된다. 그런데 이 이분법적이고 위계적인 관계망 속에서 다시금 ‘밖’에 대한 가치가 조명되고 있다. ‘밖’은 활동의 생기성, 공간의 다양성, 학습자의 주체성이 확보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정은경, 2000) 학교나 교실이라고 하는 인위적인 공간과 대비할 때 ‘밖’은 실제하고 살아있는 교육공간으로서 생명공간이자 문화공간이다.(신세니 외, 2008) 이 해방의 공간으로서 ‘밖’에서 학습자들은 역동적인 체험을 경험한다. 새로운 환경과 접하면서 세상의 에너지를 몸으로 접하고 스스로의 에너지를 세상으로 발산하는 교통이 된다. 공동육아의 바깥교육에 학문적 가치를 부여해온 이부미(2001)는 이를 ‘날숨’이라고 표현하면서, 동시에 ‘들숨’의 행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침묵이나 관찰, 느낌 등의 정적이고 감성적인 체험이 그것이다. 이 들숨과 날숨, 정(靜)과 동(動), 받아들임과 내보냄, 가르침과 배움이 함께 존재하는 균형잡힌 교육이 가능해진다.

‘밖’과의 교통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의미있는 것은 아니다. 학습자는 ‘안’이라는 진공의 공간을 벗어나 실재(Reality)와 마주한다. 이 진짜 세계에서 다른 세상, 다른 존재, 다른 문화와 만나고 교호작용함으로써 학습이 일어난다. 때로는 갈등도 있다. 개인의 문화나 배움터의 문화가 세상의



그것과 빗겨가거나 충돌하는 과정이다. 학습자는 이 과정을 통해 인지를 새롭게 하고 스스로를 성장시킨다. 비고츠키가 지적인 대로 협응적 대화를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지식과 기능, 가치, 태도가 종합적으로 결합되는 경험을 갖는다.

이 경험은 매우 자기주도적이다. 실재하는 세계와의 맞닥뜨리면서 학습자는 우선 참여적인 학습을 경험하게 된다. ‘체험’이라고 하는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행위를 통해 현실적인 문제를 탐구하고 이해하게 되는 인지적 발달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실제로 행위하고 반추하고 수정하고 재실행하는 반성적인 학습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교실 내에서의 주지적 학습에 어려움을 겪던 학습자들도 매우 적극적으로 전환되는 경험이 발견된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환경, 새로운 도전과 만난다. 그 도전을 이어나가는 것, 그 자체가 여행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여행이 갖는 가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협동학습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이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여행은 혼자 떠나건 함께 떠나건 간에 어쩔 수 없이 만남을 통해 만드는 협동학습이다. 더구나 함께 여행을 기획하고 구성하고 실행해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협동학습으로서의 성격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여행을 통한 학습이란 위에서 지적인 경험들을 강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어떤 실재하는 세계와 만날 것이며 어떻게 만날 것인가?
2. 만남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실천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3. 그 만남과의 교호작용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4. 갈등상황과 문제해결 상황들을 의도적으로 배치하거나 우연히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5. 그 속에서 반성적인 학습이 어떻게 일어나도록 자극할 것인가?
6. 새로운 도전을 어떤 방식으로 배치하고 어떻게 장려할 것인가?
7. 여행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8. 그 전체 과정 속에서 협동학습이 어떻게 일어나고 훈련되도록 구성하고 장려할 것인가?

여행학습은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지만, 특히 ‘안’에서의 분절적이고 인지적인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들에게 특히 도움이 된다. 이것이 공동육아나 대안학교 같은 대안교육 분야가 나들이/여행 학습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까닭이다. 근대의 교육은 엄격하게 조작적인 환경을 통해 정신세계의 승리를 선포했지만 동시에 한쪽 구석에서는 학교붕괴의 흔적들이 생겨났다. 1980년대 후반부터 청소년 자살과 학업스트레스, 탈학교와 학업중단, 그리고 그 반작용으로서 참교육과 대안교육의 싹은 자라났다. 현재의 학업중단 예방 사업들이나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들의 교육부문은 상당부분 대안교육의 실천에 기대고 있는 현실이다. 다양한 이유로 학교교육을 거부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들에게 실제 세계에서 몸을 움직여 능동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제는 학업중단에 대한 대책 차원을 넘어 공교육 전반에서 대안교육의 실험과 실천들을 ‘교육개혁’, ‘혁신학교’, ‘공립형 대안학교’ 등의 명칭으로 수용하고 있는 추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영역에서 적용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바로 이 여행학습이다. 공교육 체제 속에서는 특히 ‘학교’ 안’을 떠나 ‘밖’으로 나가는 일에 구조적인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교사출신 교육개혁가인 권재원은 <학교라는 괴물>이란 책에서 공교육 안에서 여행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을 충분한 인솔교사, 믿을만한 장소, 보험, 행정처리 경감의 네 가지로 정리한다. 여기에 두 가지를 더 해 모두 여섯가지로 정리해본다.

1. 충분한 인솔교사
2. 믿을 만한 장소
3. 보험
4. 행정처리 경감
5. 학습자 자기주도적 참여
6. 만남과 성장의 멘토

그러니 이제 안전 이야기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사태 이후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안전이 화두다. 각 분야별로 안전을 점검하고 매뉴얼을 만들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와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나

세월호의 희생자가 수학여행길에 있던 안산 단원고 학생들 속에서 다수 나오면서 수학여행을 비롯한 많은 교육활동들이 제도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상당한 위축상태에 들어갔다.

그러나 교육하는 사람들에게 극복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지점 중 하나는 바로 두려움이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했던 미국의 교육가 크리스 메르코글리아노는 자신의 책 <배움과 두려움은 함께 춤출 수 없다>에서 부모나 교사들이 자신들이 가진 트라우마를 교육의 현장에 투영함으로써 두려움을 표출하고 그 두려움은 곧장 학생들에게 전이된다고 강변한다. 세월호의 트라우마는 강력하게 우리의 교육현장으로 투영되고 있으며 그것은 빠르게 아이들에게까지 전이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스스로 길들여지기를 선택한다.

그러나 메르코글리아노는 배움과 두려움이 최악의 댄스파트너이기 때문에 함께 춤출 수 없음을 강변한다.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우리의 만남을,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상상력을 제약하고 있는지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배움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는지 짚어보아야 할 시점이다. 실제로 메르코글리아노의 또 다른 책 <길들여지는 아이들>은 5세에서 13세 사이 중산층 아이들이 집 밖에서 자유롭게 하던 놀이가 1980년대와 1990년대 사이에 40퍼센트나 급감했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그 공간은 상당부분 믿을만하고 안전하다고 믿어지는 (교육)상품의 구매로 채워지고 있다.

여행에서도 같은 패턴이 발견된다. 서구적인 의미로 모험과 탐험으로서의 ‘여행’이 대중화되면서 여행객은 즐기기 위해 여행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관광객(Tourist)’으로서 ‘구경(Sightseeing)’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즉 안전한 여가를 편안히 구매하여 즐기는 관광소비자가 탄생한 것이다. 모험하는 주체로서의 ‘여행가(Traveller)’는 수동적 객체인 ‘손님(Customer)’가 되었다. 따라서 ‘관계를 만들고 사회와 문화를 존중함으로써 자기 책임성을 가지며 개방성을 통해 자기 배움을 통해 자기 배움을 실현하는 생산적인 활동으로서 여행’은 ‘판매자와 소비자라는 경제구조 속에서 관계의 상호소통 보다는 단절을 경험’하고 ‘산업사회 속에서 그 본질

적 모습을 잃어버린 채 대중관광 사업'으로 빠르게 변질되었다.

물론 편안한 여가선용으로서 관광의 가치가 폄하될 필요는 없다. 다만 교육은 '성장'을 목표로하는 의도적 행위이며 성장은 새로운 환경과의 만남이 기존 사고의 틀을 흔들 때 가장 극대화된다. 따라서 많은 교육학자들은 배움을 구하는 학생들에게 도전의 환경을 어떻게 설정해 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을 다양한 이론으로 입증해왔다. 즉 교육여행이 단순히 관광 상품의 소비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교육적 가치로서의 '도전'이 '안전'이라는 필수불가결한 제한조건과 어떤 방식으로 만나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앞서 지적한 바대로 교육의 도전은 필연적으로 안전이라는 두려움을 동반한다. 두려움 때문에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거세하지 않으려면 두려움을 앞세우지 않아야 한다. 즉, 안전을 전제로 교육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구성하면서 안전을 확보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물론 이 모든 짐들을 현장의 교사들에게만 지우거나 안일한 규제로 교육을 잃어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 무엇보다도 교육이 모험과 도전의 길을 잃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장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행과 교육, 그리고 공정여행을 전문으로 하는 청년사회적기업의 만남은 그래서 소중하다. 그 속에서 넘나들며 배우는 상상력이 꽃을 피울 수 있다. 이제 그 상상력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열어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우찬제(1995). '길트기의 나날', 이문열 외 편. 한국 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권재원(2014). 학교라는 괴물. 북멘토.

이부미(2001). 놀면서 자라고 살면서 배우는 아이들. 또 하나의 문화.

서정기(2009). '교육방법으로서의 여행의 의미와 과제'. 하태욱 외. 비인가 대안교육 현장 여행 교육과정의 비판적 성찰. 대안교육연대.

정은경

박은옥(2015). '현장체험학습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안전대책 방안 연구'. 교육문화연구, 21(1)

신세니 외(2008). 유아들의 목소리에 나타난 바깥놀이터의 의미. 열린유아교육연구, 13(6).

크리스 메르코글리아노(2005). 두려움과 배움은 함께 춤출 수 없다. 민들레.

크리스 메르코글리아노(2014). 길들여지는 아이들. 민들레.

존 홀트(2007). 아이들은 왜 실패하는가. 아침이슬.

호머 레인(2011). 아이들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민들레.



# 정 책 토 론

- 스스로 계획하고 함께 만드는 여행
  - 김현주 / 의정부여자중학교 교사
- 대전지역 수학여행의 실태와 개선방안
  - 성광진 / 대전복수고등학교 교사, 대전교육연구소 소장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외체험학습 지원에 대하여
  - 이병진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팀장
- 대전지역 학교 밖 여행의 실험과 의의
  - 최선희 / 대전광역시동구청소년자연수련관 수련팀장



## 스스로 계획하고 함께 만드는 여행

김 현 주 (의정부여자중학교 교사)

### 1. 여행의 목적

- 1) 스스로 찾아 나서는 주체적 여행
- 2) 함께 하는 공동체 여행
- 3) 새로운 도전 정신을 익히는 모험 여행
- 4) 자신을 찾게되는 자기존재 확인 여행

### 2. 여행의 교육 효과

- 1) 학습의 자발성
- 2) 나눔
- 3) 가르치면서 배운다
- 4) 자기 주도성
- 5) 인내

##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여행 - 주제 통합기행”

### 1. 필요성

- 교육철학인 “돌봄과 배움의 공동체” 을 실현하기 위한 나의 과정
- 배움과 나눔으로 미래 역량을 함양하는 학교 문화 정착



- 학생들과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학생의 권리와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풍토를 조성하기 위함
- 학교생활을 뒤돌아보며 마음의 여유를 갖고 기행을 떠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기 위함

## 2. 목 표

- 배움 공동체 실현을 위한 참여와 소통을 이끌어 내는 행복한 분위기 조성
- 학생들 간에 소통을 통해서 나눔의 문화를 정착하고 육체적·정신적 성장을 위함
- 학생들 스스로 통합 기행을 준비하면서 자존감과 배려를 배우는 학교 문화를 정착
-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서 가정과 부모의 중요성을 인식

## 3. 방 침

- 전체기획은 학생들 스스로 학급에서 기획하고 준비한다.
- 국어 시간을 통해 기행을 준비하고 교육과정부와 학년부는 제반 사항들에 대한 지원을 한다.
- 당일활동은 학급별 모둠장 중심으로 실시한다.
- 당일 활동 내용은 프로젝트 결과물로 제출한다.
- 주제와 장소, 일정 등 모든 계획은 국어시간과 학급 시간에 학급원의 협의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 교과통합활동 프로그램은 개별활동, 모둠활동, 단체활동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한다.

## 4. 운영의 실제

- 주제통합기행 시기: 1, 3학년 6월 11일(수)~12일(목), 2학년은 6월 10일~12일
- 주제통합기행 계획

### [2013년도 운영과정]

- 🍌 주제, 장소, 일정 등 모든 계획은 학급시간에 학급협의 과정을 거쳐 선정
- 🍌 1, 3학년의 경우 1박 2일의 일정, 2학년의 경우 2박 3일의 일정임.

- 🍌 국어시간에 교과재구성(여행을 떠나요 단원)을 통해 수업을 통해 준비
- 🍌 학급에서 학생들의 결정으로 장소 등이 결정되므로 학급별 주제통합기행진행
- 🍌 운영절차



### [2014년도 계획]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주제통합기행	함께 만드는 여행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 주제와 장소, 일정 등 모든 계획은 학급 시간에 학급원의 협의 과정을 거쳐 선정
- 1, 3학년의 경우 1박 2일의 일정, 2학년의 경우 2박 3일의 일정임.
- 1학년의 경우 국어시간에 교과 재구성(여행을 떠나요 단원)을 통해 수업을 통해 준비함.
- 학급에서 학생들의 결정으로 장소 등이 결정되므로 학급별로 주제통합기행이 진행됨.



장흥 친구네 마을



청평 물놀이



강촌 체험 학습



강원도 화천

## 5. 성과

-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 준비, 실행하는 속에서 의사결정의 방법을 익힘.
- 자신들의 선택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책임감이 커지고 신중해짐.
- 여행은 준비과정에서부터 시작됨을 알고 여행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음.
-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 실행하는 여행을 통해 책임감을 갖게 함.
- 여행은 준비와 실행 단계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의 문제를 민주적인 회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함.

## ◆ 학 습 지 ◆

좋은 여행은 나를 성장시키고, 공정한 여행은 세계를 변화시킨다.

### <함께 이야기 나누기>

1. 여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여행을 가면 무엇을 하고 싶고, 어디로 가고 싶은가요? 여행을 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행은 < > 이다.

2.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은(좋았던 여행, 싫었던 여행)? 왜 그런가요?

3. 여행은 가는 것일까? 하는 것일까?

여행을 간다?/ 여행을 한다?

### <영상보기>

4. 지식채널의 빈 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 같은가요? 보고 나서 빈 칸을 채워봅시다.

#### 지식채널 E- 나의 여행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리고 다시 일상  
여행 가서 난 뭘 했지? 내가 한 게 여행인가?

여행은 단순한 (장소) 의 (이동)이 아니라 자신이 쌓아 온 (생각의 성)을 벗어나는 것이다.  
-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  
어디로 갈까? 정말 ( 가고 싶은 ) 곳인가? ( 안전한 ) 곳인가? 그 지역의 ( 금기 사항 )은?

관심과 취향에 따라 일정을 짜고 (믿을 만한 상품인가?) 여행 관련 정보들을 꼼꼼히 확인  
떠난다

어디서 잘까? ( 어떤 것을 먹을까 )? 무엇을 할까? ( 현지인들의 삶 )에 도움이 될까?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현지인의 인권을 존중

동물을 ( 학대 )하는 쇼, 투어 참여하지 않기  
지구를 아끼고 돌보며 그 지역의 (문화,종교)를 존중하기, (사진) 찍을 땐 허락을 구하기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서로 공정한 여행

공정여행- 여행자, 여행사, 현지 주민이 (대등한) 관계에서 함께 (행복)을 나누는 건전한 여행  
그리고 다시 돌아온 삶의 자리에서 오래도록 ( 힘 )이 되어주는  
나의 여행 속에 존재했던 그 모든 것들의 기억

5. 세상을 바꾸는 15분- 세상을 바꾸는 여행(임영신 편)

세상을 바꾸는 여행은 어떤 여행이라고 강조하나요? ( )여행, ( )여행  
어떻게 하면 그런 여행을 할 수 있을까요?

6. 앞서 읽었던 여행 수필 ‘즐거운 사람들, 고통받은 동물들’, ‘지식채널E’, ‘세상을 바꾸는 여행’을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1번에서 생각했던 여행의 가치에 어떤 가치나 의미를 더해야 할까요?

7.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행은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봅시다.

여행은 < > 이다.

8. 여행 가서 무엇을 할까?

여행은 어디로 가는 것보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유적 답사- 유물, 유적, 문화재 등 조상의 얼이 담겨있는 문화 유산을 찾아 가는 여행  
(고택 체험, 문화 유적 답사 등)  
생태 기행- 생태계의 다양한 현상과 생물들의 삶의 모습을 관찰하는 여행  
(갯벌체험, 한강 탐사, 수 체험, 휴양림 등)  
문학 기행- 작가의 삶과 문학 작품의 배경이 되는 곳을 찾아 문학의 숨결을 느끼는 여행  
(소나기 마을, 김유정 문학촌, 문학 작품 배경, 영화의 배경이 되는 장소 등)  
풍물 여행- 각 지방의 독특한 풍속이나 문화, 지역 축제를 찾아가는 여행  
(5일장 체험, 풍물 축제 등)  
산천 여행- 산이나 들, 강이나 바다를 찾아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는 여행  
(국토 순례, 산이나 강에서 캠핑, 둘레길 걷기 등)  
농촌 기행- 농촌이나 어촌, 산촌 등의 시골에서 그곳의 삶을 체험하고 일을 해 보는 여행  
(농사일 체험, 농촌체험마을 등)

\* 여행의 주제나 키워드를 정하고 학급의 단합이나 체험 프로그램을 넣어서 결합할 수 있다.

9. 우리 모듬은 어떤 여행을 할 것인가? 여행의 주제를 정해봅시다.

여행은 단순한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자신이 쌓아 온 생각의 성을 벗어나는 것이다. 그동안 내가 가졌던 편견, 좁은 생각, 고집을 벗어나서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다시 돌아와 오래도록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는 여행의 기억을 만드는 것.

그것이 이번 주제통합기행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이다

<p>국어로 삶을 사랑하는 법률 배우자 7월 7일</p>	<p>4. 자료 활용과 토의 (2) 주제통합기행 준비</p>	<p>1학년 / 반 / 번 이름 /</p>
---	---------------------------------------	-----------------------------

## 여행을 준비하는 것부터 여행의 시작이다.

### 1. 아는 만큼 보인다- 준비하고 떠나자.

여행지의 명소, 식당, 교통만 준비? 여행하는 곳의 사람들을 존중할 준비는 되었는지. 여행을 가기 전 준비할 것은 옷, 신발, 선크림이 아니라 여행지와 현지인을 존중하는 마음의 준비이다.

### 2. 학급이 함께하는 여행의 감동을 살리자.

놀이 공원에 가서 학급의 단합을?

학급이 함께 하는 여행을 떠나자. 1학년 여행의 중심은 '관계'다.

여행지의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주제통합기행이 더 감동적인 이유는 지금 내 곁의 우리반 친구들을 그곳에서 '새롭게'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 3. 가서 무엇을 할까?

여행지보다 중요한 것은 가서 무엇을 하느냐이다.

여행 추억의 대부분은 그곳에서 만난 사람, 그곳에서 내가 체험한 것들이다.

여행지에서 학급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꼭 준비하자.

### 4. 이동거리- 최대 4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자.

바다에서 해수욕을 하고, 바닷가 생태 보호 봉사활동 여행을 한다고 하자.

부산으로 여행을 간다면 가는 데 ktx로 왕복 6시간, 왕복 100,000원이 든다.

속초로 간다면 버스로 왕복 6시간, 왕복 약 35,000원이 든다.

의정부에서 서울에 가는 시간을 추가한다면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한 한나절은 된다.

이동거리가 너무 길면 지치고, 여행지에서는 정작 피곤하고 서로 짜증을 내다 오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장소는 양평, 가평, 포천, 양주, 춘천 정도여야 대중교통 왕복 4시간으로 이동할 수 있다.

### 5. 숙소- 여행지의 관공서 사이트, 마을 공동체에 문의하자.

지역 구청, 마을 공동체 사이트 등을 최대한 찾아보고 전화해보자. 요즘 마을 회관은 시설이 펜션만큼 좋다. 거기다 비용도 저렴하거나 운 좋으면 공짜다. 우리 반에 시골 할머니 덕이나 외할머니덕이 있는 사람, 집 가까이 좋은 여행지가 있는 사람이 없는지 잘 찾아보자. 반 전체가 친구 한 명 잘 둔 덕에 특별한 여행을 할 수 있다.

### 6. 배려하는 여행- 준비 단계부터 참가자를 배려해야 한다.

몸이 불편해서 체험활동에 같이 참가하기 어려운 경우, 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우, 관계가 어려운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기회를 통해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성장할 수 이쁜 기회라고 생각하자. 그리고 친구가 불쾌하지 않게 배려하자. 함께 하는 여행은 나만 즐겁다고 되는 게 아니다. 같이 즐거울 때 성장하고, 성장할 때 삶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 <2013년 주제통합기행 학생 평가>

(    )학년 (    )반 (    )모둠, 모둠원:

※ 조별로 이야기를 나눈 후 공유해주세요. (조원 중 서기를 뽑아 모듬원의 의견을 정리하고, 모듬 대표가 발표.)

### 1. 준비과정(수업과정, 자료수집, 조사과정, 학급회의)

좋았던 점, 느낀 점	아쉬웠던 점, 힘들었던 점

### 2. 여행과정

#### 1) 공정여행의 원칙을 잘 지켰는가?

- 나는, 우리 반은 공정여행을 위해 어떤 점을 노력했는가?
- 공정여행 원칙을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었는가? 왜 그랬는가?

#### 2) 나는, 우리반 친구들은 맡은 역할을 충실히 했는가?

- 부족했던 점, 미흡한 점은 없었는가?
- 내 역할을 하고 나서 느낀 점이 있다면?

#### 3) 음식, 시설, 장소, 프로그램에 대하여

좋았던 점, 느낀 점	아쉬웠던 점

### 3. 이번 여행 중에 나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좋았던 점, 느낀 점	아쉬웠던 점

### 4. 종합 평가

가장 즐거웠던 부분	가장 힘들었던 부분	나에게 생긴 변화 - 태도나 생각 ,어떤 점에서 성장했나요?

### 5. 더 멋진 주제통합기행을 위해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대전지역 수학여행의 실태와 개선 방안

성 광 진 (대전복수고등학교 교사, 대전교육연구소 소장)

### 1. 대전지역 수학여행 실시 현황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대전지역 각 급별 학교들의 수학여행 실태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1) 급별을 막론하고 학년 단위로 대그룹 수학여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2) 여행지가 일정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3) 일정한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 가. 초등학교 수학여행의 실태 (2013년)

초등 114개 학교 가운데 100개 학교가 경주 일원을 여행지로 삼았다. 10개 학교는 서울 수도권에서 그밖에 공주·부여 일대, 강원도, 남해 일대, 제주도가 각각 1개 학교였다.

여행지	경주 일원	서울, 수도권	공주, 부여	강원도	남해 일원	제주도	계
초등학교	100	10	1	1	1	1	114

여행 일시는 35개 학교가 10월 중, 35개 학교는 4월 중, 70개 학교가 봄·가을의 특정한 달에 편중되어 있었다. 실시 학년은 대부분 6학년이었지만, 소규모 학교는 몇 개 학년이 함께 가기도 하였다.



여행일시	4월	5월	6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초등학교	35	10	5	19	35	9	1	114

여행 학년	5학년	6학년	4~6학년
초등학교	17	87	10

경주의 경우, 여행 일정은 2박 3일이 대부분으로 학생 1인당 비용은 10만 8천원에서부터 15만 원대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었다.

#### 나. 중학교 수학여행의 실태 (2013년)

중학교의 경우에는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와는 달리 여행지가 대체로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여행지	강원도	남해안 일원	동해안 설악산	전남 일원	제주	수련원	서울	계
중학교	20	25	21	13	1	1	1	82

여행 시기는 4월과 5월 등 봄철에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고, 주로 2학년에서 실시했다.

여행일시	4월	5월	9월	10월	12월	무응답	계
중학교	27	51	1	1	1	1	82

여행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2학년	전체 학년	계
중학교	1	74	3	1	3	82

2박 3일 일정의 여행비용은 최저 8만원에서 최대 17만원까지 형성되어 있으며, 1인당 평균 13만 원대로 볼 수 있다.

#### 다. 고등학교 수학여행의 실태 (2013년)

고등학교 54개교 가운데 47개교가 여행지로 제주도를 선택하였다. 여행지가 제주도의 경우 2박3일 일정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여행지	제주도	남해안	미국동부	일본	중국	계
고등학교	47	2	1	2	2	54

여행일수	2박3일	3박4일	계
고등학교	37	10	47

여행비용은 2박 3일 프로그램과 3박 4일 프로그램을 합쳐 계산하였을 때 평균 37만2천 원 선으로 학교별로 큰 가격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박 4일의 경우는 10개 학교 중 6개 학교가 비행기가 아닌 선박을 이용하였다.

주로 1학년 때 수학여행이 이루어졌으며, 초·중학교와는 달리 5월과 10월에 쏠리는 현상은 다소 적었다.

여행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35	18	1

여행일시	3월	4월	5월	6월	7월	9월	10월	11월	계
고등학교	5	11	14	3	2	4	14	1	54

## 2. 현행 수학여행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가. 학년 단위로 움직이는 대그룹 수학여행의 문제점

학교에서 대그룹 수학여행을 선호하는 이유는 학사 일정 관리와 준비가 쉽고, 비용이 절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고나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분명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에 못지않은 적잖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 1) 비효율적인 여행

대부분의 수학여행은 1개 학년 단위로 이루어진다. 1개 학년 8학급일 경우 보통 300명에서부터 규모가 큰 12학급의 경우에는 400여 명에 이른다. 이처럼 많은 인원으로는 효율적인 수학여행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차분한 분위기로 여행에 집중하기 어렵고 모든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된다. 한 마디로 체험 중심의 여행을 실시하기 어려워 관람 위주의 여행이 되기 쉽다.

### 2) 획일적인 여정

대규모 수학여행의 경우 교통 및 숙박 시설에서 제약을 받게 마련이고, 대규모 인원의 수용이 가능한 장소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다양한 여행지를 선택하기 어렵다. 그에 따라 여행지도 유명 관광지 중심으로 정해지고, 여정도 숙박 시설을 정해 놓고 그 주변을 돌아보는 형태로 짊 수밖에 없다.

### 3) 수학여행 시기의 쏠림 현상

학교 수학여행 시기의 쏠림 현상도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1학기에는 4월 말부터 6월 초까지, 2학기에는 추석 무렵에서 10월 말까지 몰려 있다. 이렇게 시기가 한꺼번에 몰리면 숙소, 버스, 식당 등의 비용이 상승하고, 여행지가 혼잡하여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 또 버스기사들의 과로로 인하여 사고 위험도 높아진다.

#### 나. 개선 방안

- 학사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수학여행의 시기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 4월과 10월에 집중된 초등학교의 경주 여행도 학교들 간의 정보 교환을 통해 쏠림 현상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한 가지 일정으로 수학여행이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 일정을 마련하고 학급별로 또는 개별 학생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준다면 수학여행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 3. 소그룹(학급별) 테마 여행을 대안으로

요즘 학생들은 과거와 달리 가족 또는 친지들과의 다양한 형태의 여행 체험이 많다. 이러한 여행은 주로 ‘놀러 간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학교는 이러한 경험과는 다른 차원의 새로운 여행을 기획해야 한다. 체험형 소그룹 테마 여행은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존의 수학여행과는 다르게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 가. 소그룹 테마 여행의 갈래

##### 1) 체험형 테마 여행

- 1) 레포츠형 - 등산, 레일바이크, 래프팅, 트레킹 등
- 2) 농어촌 체험 - 농사 체험, 갯벌 체험, 물고기 잡기 체험 등
- 3) 전통 체험 - 민요, 판소리 배우기, 공예품 만들기, 다도 및 전통가옥 체험 등

##### 2) 주제별 테마 여행

- 1) 문학기행 - 가사문학 탐방, 통영·하동 박경리 유치진, 평창 이효석, 춘천 김유정, 강진 김영랑, 별교 태백산맥, 전주 최명희 등
- 2) 역사기행- 동학혁명 전적지, 서울 고궁 기행, 백제 역사 기행, 고인돌 기행 등
- 3) 생태 환경 과학 - 우포늪, 순천만 갯벌, 무안 갯벌, 연구소, 천문대 등
- 4) 산업체 탐방 - 철강, 자동차, 선박, 농식품 등
- 5) 그 외에도 템플스테이, DMZ 탐방(통일), 전통마을 탐방, 공연 관람 등

#### 나. 테마 여행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테마 여행의 장점은 첫째, 소규모로 진행되는 여행이기 때문에 대형 사고의 위험이 줄어든다. 둘째, 혼잡한 곳을 피할 수 있어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고, 여유가 있어 여행에 집중할 수 있다. 셋째, 다양한 테마가 선택 가능하고, 장소 선택이 다양해진다. 더불어 교실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학생의 다른 면을 볼 수 있고 교사와 학생 간에 친밀도가 높아진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 둘째, 유능한 여행 안내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고, 교사의 업무량이 증가한다. 더욱이 학교측의 준비가 아직 부족한데다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솔하는 담임교사가 전적으로 떠맡아야 한다는 점에 우려가 많다.

결국 소그룹 테마 여행이 학교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준비를 담당해야 하는 담임교사들의 학생 관리에 대한 부담과 사고에 대한 학교 경영자의 염려 때문이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사고에서 교사들의 과오가 없다면 책임과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안전공제회와 보험 등에서 사고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현재 테마 여행은 선택지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각종 여행코스를 준비하고 있지만, 학교와 연결하는 체제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 교육청이 각 지자체의 테마 여행 코스를 통합하여 안내하고, 지자체의 연락책임자 및 안내자들을 섭외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면 소그룹 테마 여행도 지금보다 훨씬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외 체험학습 지원에 대하여

이 병 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팀장)

### □ 제주지역 학교의 교외 체험학습 상황(대체적인 경향)

#### ○ 초등학교

- 1~6학년: 학기별 2회, 연 4회
  - 봄, 가을 자연체험학습(과거의 봄, 가을 소풍 개념)
  - 문화체험: 교육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 진행(예-도자기 체험 등)
- 5학년: 인성수련
  - 주로 1박2일 프로그램
  - 청소년 수련시설 활용한 위탁교육 형태
- 6학년: 수학여행
  - 제주도내 자연환경 및 문화유적 답사
  - 주로 1박2일 프로그램으로 진행

#### ○ 중학교

- 수학여행
  - 자유학기제 전면도입 이전에는 주로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
  - 2014학년도에 자유학기제를 전면 도입하면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
  - 도외 지역 중심으로 실시(수도권, 백제문화권, 신라문화권 등)
  - 여정: 3박4일에서 4박5일 정도

- 세월호 참사 이전: 출발이나 도착 중 1번씩 배편 및 항공편 이용
- 교외 체험학습
- 중학교 재학기간 중 1회 정도 실시
- 인성수련
- 주로 1박2일 프로그램
- 청소년 수련시설 활용한 위탁교육 형태

## □ 체험학습비 지원 현황

### ○ 교외 체험학습비

- 초등학교 1~6학년 전체
- 연간 1인당 3만원(연간 5만원 지원을 도의회에서 3만원으로 예산 삭감)
- 지원예산 집행: 전세버스 대여 등 주로 교통비 위주로 집행하고 필요 시 프로그램 참가비로도 활용
- 예산규모: 11억 4,285만원(1인당 약 4만원, 총 37,078명)
- 지원 현황: 2014학년도 2학기부터 지원

### ○ 초·중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 초등학교
  - 지원 계획: 2017학년도부터 적용 예정
  - 1인당 지원 규모: 65,000원(제주도내 1박2일 수학여행 기준으로 편성함)
  - 대상: 1개 학년(6학년 중심)
  - 연간 예산 규모: 3억 9,293만원(6,045명 기준)
- 중학교
  - 지원 현황: 2015학년도부터 읍면지역 중학교 학생들에게 지원
  - 1인당 지원 규모: 30만원(타시도 4박5일 기준으로 편성)
  - 대상: 1개 학년(중학교 2학년 중심)
  - 연간 예산 규모: 3억 6,090만원(1,203명 기준)
  - 향후 추가 지원 계획: 2016학년도부터 읍면지역+동(洞)지역 중학교 학생들에게 지원 예정
  - 추가 지원에 따른 추가 예산 규모: 약 15억원

### ○ 초·중학생 수련활동비 지원

- 대상: 초5, 중1 기준
- 지원 규모: 연간 5억원 정도 예상
  - 초등학생: 1인당 35,000원
  - 중 학 생: 1인당 45,000원
- 지원 계획: 2017학년도부터 지원 예정
- 산출 근거: 1박2일 위탁교육과정 예상하여 공약 계획 수립

## □ 공약 반영 배경

### ○ 필요성

- 체험학습, 수학여행, 수련활동은 선택적 교육활동이라기 보다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실을 인정
-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무관하게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 ○ 목표

- 의무교육과정인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비용 부담없는 교육환경 제공
- 함께 모두 참여하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행복한 학교문화 만들기에 기여

### ○ 추진 방향

- 학생 1인당 일정액을 지원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집행하도록 유도
- 교육적 효과와 합리성을 고려한 예산 집행

### ○ 추진 근거

- 헌법 제31조 ③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 기대 효과

- 차별없는 교육기회 부여
- 경제적 여건에 따른 교육 소외 방지
- 주눅들지 않는 당당한 배움터 만들기
- 공교육 만족도 확대
- 학부모 부담 축소
- 교육행정 업무의 간소화





## 대전지역 학교 밖 여행의 실험과 의의

-여행을 통한 청소년의 성장과 앞으로의 여행을 위한 제언-

최 선 희 (대전광역시동구청소년자연수련관 수련팀장)

우리나라의 청소년은 현재 교육과정안에서 입시스트레스라는 압박으로 시달리고 있다. 여행은 이러한 입시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모두를 설레게 하는 여행은 일상에서와 다른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갖는 체험을 통해 얻어지는 학습으로 교육과정안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 가도록 해주는 또 다른 학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꿈과 목표에 대한 불확실한 현실을 돌아보게 하고, 새로운 결심을 세우게 하여 긍정적 자아성장의 기회를 주기도 한다. 현장체험학습, 수련회, 수학여행 등 교과과정 안에서 진행되는 여행은 적은 예산과 청소년들의 안전성을 이유로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학교 밖 여행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성장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첫째 학교 밖 여행은 지역에 대해 알아가는 기회를 준다.

집과 학교, 학원을 오가는 청소년들의 일상과 학원버스, 부모님의 자가용 등을 주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여행은 동네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생기게 해준다. 우리 동네에 있는 산, 하천,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 작은 카페, 오래된 식당 등을 통해 지역을 자세히 바라보게 해주는 안목을 키워주며, 애향심을 키워주게 된다. 또한 대중교통, 걷기, 자전거 등을 통해 동네와 지역을 이동하는 방법을 알고,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대한 관심도 갖게 된다. 도심 아파트 빌딩 숲 사이에서 살았던 아이들이 도시 안에 작은 시골마을이 있다는 것에 놀라고, 원도심안 작은 골목 속에 예술적인 디자인에 다시 놀라게 된다. 우리가 사는 동네 환경, 생태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주며,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기위한 문제점은 없는지 청소년이 연대해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면서 지역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게 한다.

둘째 청소년에게 여행은 새로운 사람을 사귀고, 편견을 극복하는 계기를 준다.

부모의존성이 강한 현재의 청소년에게 학교 밖 여행을 통해 낯선 곳에서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이를 통해 독립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해준다. 자주적이며, 독립적인 여행 중에 아이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고, 적극적이지 못한 친구들이 마주치는 사람들 속에 미소로 인사하며 함께 여행하는 친구들끼리의 끈끈한 연대와 의지가 생긴다.

다양한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세상에 대한 인식의 틀이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성장은 스마트폰 안에서 주로 세상과 사람을 만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눈으로, 손으로, 열정으로 사람을 만나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여행지에서 만나는 예술가, 작은 구멍가게 아저씨, 소박한 밥상을 차려주는 식당 아주머니 등 여행에서 만났던 사람에 대한 기억은 나와 다른 이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줄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사람과 더불어 사는 세상에 대한 신뢰를 쌓아주게 된다.

셋째 학교 밖에서의 여행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준다.

아이들과 여행할 때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로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게 하는 경우가 있다.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배고프고, 갈증 나는 한계상황에서 나와 가족의 관계를 돌아보게 해준다. 부모님이라서,

자식이라서 당연하게 주고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깨닫게 해준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점 앞에서 해결하게 고민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은 누군가에게 손 내밀며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 도움을 주고받으며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이치를 배운다.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나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임을 깨닫게 해주며 일상에서 소홀했던 친구나 선생님과 관계를 돌아보게 해준다.

유명한 건축물을 통해 건축가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이들이 건축가의 꿈을 키우게 되고, 제 3세계로의 여행을 통해 나눔과 기부자의 역할을 배우는 것, 다양한 사람을 만나 다양한 직업세계를 배우게 되는 것 등도 역시 여행이 만들어주는 새로운 관계인 것이다.

이처럼 현장에서 다년간 학교 밖 여행을 이끌어 본 결과 여행이야 말로 청소년의 성장과 성숙을 이끌어 주는 최고의 학교라고 정의내리고 싶다. 학교 밖 여행은 청소년들에게 주는 이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청소년이 여행하고 싶을 때 떠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다. 사건사고가 생길 때마다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안전조치가 강화되면서 프로그램을 제안하게 된다. 작년 세월호 사고 이후로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제가 강화되어 1박 이상의 야외활동(여행) 프로그램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으면 프로그램 진행을 할 수 없게 법으로 규정을 해 놓았고, 올해 메르스가 발생하자 수련시설은 휴업과 안전점검 강화로 꼭 필요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오히려 제한하기도 했다.

우리 아이들에게 유익한 여행을 통해 지역, 사람, 관계를 통한 성장이 지속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적이면서도 안전한 여행이 되도록 정부의 관심과 투자가 우선적으로 갖춰져야 할 것이며, 여행을 통해 청소년이 성장과 성숙의 성과물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자의 전문성과 안전에 대한 책무성이 기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제 언

## **변화를 창조하는 교육경험으로 공정여행**

권 선 필

(목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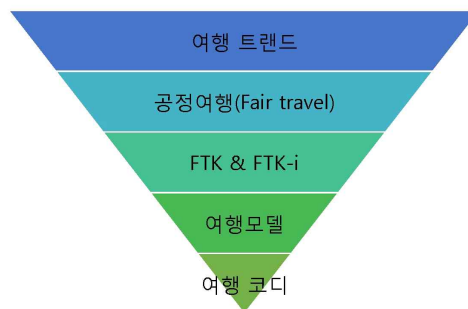
# 변화를 창조하는 교육경험으로 공정여행(Fair Travel)



권 선 필  
목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FTK-i(Fair Travel Korea International) 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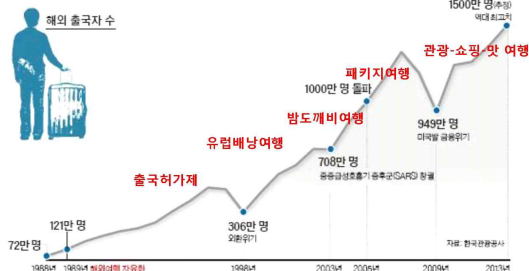
## 목차

- 여행 트렌드를 넘어서
- 공정여행의 등장
- 공감만세와 공정여행
- 공감만세의 공정여행 모델
- 공감만세의 여행 코디네이터





# 한국인의 해외여행



중앙일보. 자유화 25년 해외여행의 어제와 오늘, 14.13



2010년 이후 해외여행 시장은 개별 자유여행(FT) 중심으로 급속히 개편되고 있다. 집계는 2013년 해외여행자의 70%가 개별 자유여행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우선 인터넷의 발달이 컸다. 익스피디아·아고다 등 미국의 대형 온라인여행사가 상륙하면서 온라인으로 호텔을 직접 예약하는 풍속도가 널리 퍼지고 있다. 저비용항공사(LCC)의 역진으로 항공도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이제 한국인은 관광만을 위해 외국에 나가지 않는다. 여행의 목적이 쇼핑·예술·트레킹·미식·온천·스포츠 등 다양해지고 세분화되는 추세다. 하나투어 참가한 홍보팀장은 "장소(where)보다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고객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4 지금의 2030세대는 특별한 여행론 거부한다. 최근엔 외국여행과 여행에 다니는 '다'의 해외여행'도 인기다.

SNS를 활용해 개인의 여행을 실시간 공개하는 것도 요즘의 여행 풍속도다. 여행비행비·카투치·여행 등 숙박 공유 사이트는 현대 여행의 필수품이 됐다. 여행 프로그램 등 현지인과 어울리는 여행 프로그램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한국관광공사가 2013년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트렌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4.8%가 "2014년 해외여행 여향이 있다"고 답했다. 여행 시기는 여름휴가 때보다 5월이나 10월이 더 많았다. 해외여행 일상화 시대로 진입한 것이다.

# 한국인의 해외여행



## 관광, 쇼핑, 맛, 해소

저 한국인 방문객이 급증하냐?  
그림에도 알려진 관광지 등을 찾는 한국인 방문객은 계속 늘고 있다. 지난 2012년 1000명 중 첫 방문객은 2013년에는 116만명에 달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이고 '다'는 인식이 확산돼 각종 여행지 방문을 가능하게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한관광도 관광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여행 혹은 사냥을 목적으로 할지 몰라도 한국 남성들이 증가하면서 현지 여성들을 탐닉시킨 뒤 무죄판결을 받고 떠나거나 중우가 배당되게 운영해 오고 있다. 그렇게 나타난 한국인과 현지인 여성 사이의 사 대안인 '조각'은 2년 중 가장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인의 상해에도 현지인들과 인한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MBC W5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최근 5년을 기준으로 해외에서 상해받은 한국인의 수는 700여명, 전체 외국인 중 100명 정도인 1위이다. 상우고 국가는 필리핀에서 내타 공격이래 2013년 2월 1일 1명은 중우가 대부분이다.



## 최근의 여행트렌드

### • 2015년 세계관광트렌드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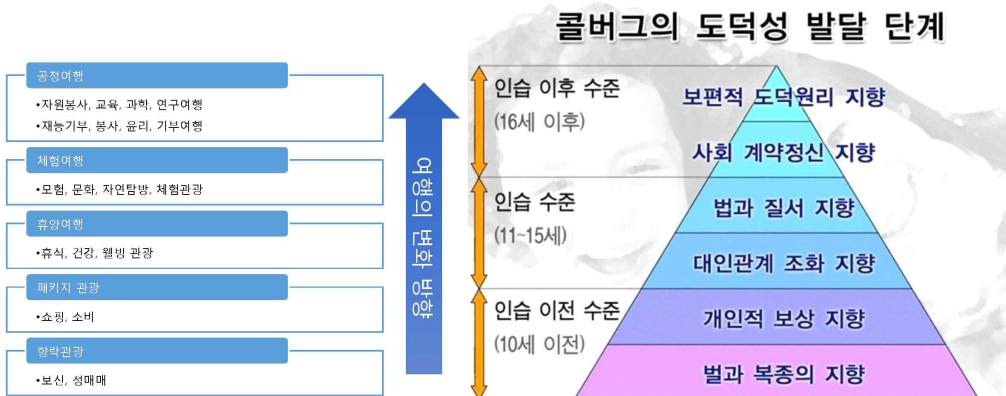


### • 2015 국내 관광 트렌드

- 중국, 한국 관광 시장의 지형을 바꾸다
- 관광, 경계를 허문다
- 관광의 기본 가치 (NEW 3S: Safe, Sustainable, Social) 존중 여행 확산
- 모바일이 주도하는 새로운 관광생태계
- 즐거움 불편함, OR(Outdoor Recreation) 여행
- 지역의 숨겨진 매력물 찾아 떠나는 여행
- 여유로움과 행복을 추구하는 여행문화, 글로부 트래블
- 스스로 결정하고 떠나는 DIY 여행
- 관광의 斷소비증으로 부상하는 중장년층
- 칩 시크(Cheap-Chik)를 추구하는 실속형 관광소비 정착

5

## 여행 성숙: 목적/가치의 변화



6

## 해외여행의 수준



7

## 깨달음의 여행: 불교 아함경

붓다가 살던 시절 키사고타미라는 여인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의 죽음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수 없었던 그녀는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약을 찾아 사방을 헤매다녔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붓다가 그런 신비한 약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키사고타미는 붓다를 찾아가 절을 한 뒤 이렇게 물었다.

"내 아이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약을 만들 수 있나요?"

붓다가 대답했다. "난 그 약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있소. 하지만

그 약을 만들기 위해선 재료가 있어야 하오."

가슴을 쓸어내리며 여자가 물었다.

"어떤 재료가 필요하나요?"

붓다가 대답했다. "여자씨 한줄을 갖고 오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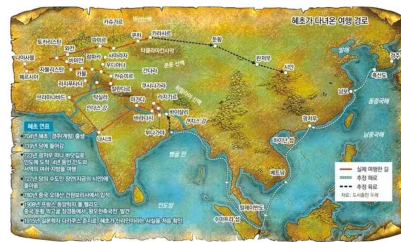
여자는 당장에 그것을 가져오겠노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나려는 순간, 붓다가 이렇게 덧붙였다.

"내가 원하는 여자씨는 아이나 부모, 하인을 가릴 것 없이 누구도 죽지 않는 집안에서 가져온 것이어야 하오."

여자는 고개를 끄덕인 뒤, **여자씨를 찾아 집집마다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키사고타미는 죽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돌아다니던 중, 슬픔에 빠진 사람이 자신만이 아니라는 걸 마침내 깨닫고 비로소 생명이 빠져나간 자식의 몸을 내려놓았다.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 - 우리는 무엇때문에 고통받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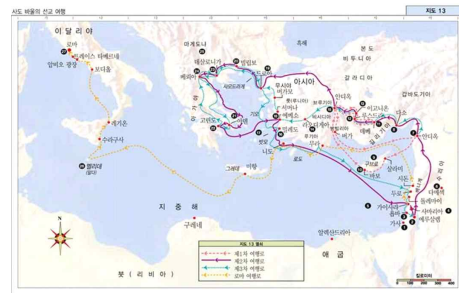


8

## 실천의 여행: 기독교

- 7 그리고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불러 둘씩 짝지어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 8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여행**하는 데 필요한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식량이나 가방이나 돈도 가지고 가지 말고
- 9 신발만 신고 여분의 옷도 끼입지 말아라.”
- 10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떠날 때까지 너희는 한집에서 머물러라.
- 11 어느 곳에서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거든 그 곳을 떠날 때 신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 그들에 대한 증거를 삼아라.”
- 12 그래서 제자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도하며
- 13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쳐 주었다.

신약성서 마가복음 6장



9

## 의무로서 여행: 이슬람

이슬람의 5대 의무

1. 샤하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무함마드는 신의 사도다” 이러한 선언을 샤하다라고 하며, 이것을 믿고 선언하는 것이 이슬람의 첫 의무이다.
2. 하루 5회 예배(기도)  
무슬림은 하루 5회(가능하다면 모여서) 예배할 의무가 있다. 예배는 특정한 시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시간은 헤프는 시간에 따라 매일 달라질 수 있다.
3. 라마단 단식월 준수  
무슬림 달력(히즈라력)의 9번째 달을 라마단이라고 하는데, 이 라마단 기간에는 쉽게 애기해서 해가 떠있는 동안 금식을 해야한다. 이러한 단식은 영적, 신체적 훈련으로, 자신을 통제하고 시련과 고난을 음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4. 자카트  
자카트는 종교세를 의미하는데, 무슬림은 라마단이 끝날 때 연수입의 2.5%를 종교세로 내게 되어 있다. 이러한 자카트는 빈곤층과 공공복지를 위해 사용된다.
5. 성지순례(하지)  
무슬림의 성지순례를 하지라고 하는데, 경제적, 신체적 능력이 되는 사람은 평생 최소 한번은 하지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의 경우에도 특정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보통 라마단 종료 후 2개월 후가 된다.



사우디아라비아 종교관광산업 전망



10

## 공정여행 (Fair Travel)

- 여행에 공정성이 개념을 적용하려는 사회정의실현운동  
Fair travel [fair travel] is a nascent movement of tourism providers, tourism-reliant communities, social justice advocates, and concerned tourists that is seeking to apply "fair trade" principles to the tourism industry.
- 여행에 형평성있는 표준과 공정한 관행을 장려하며, 지역이나 공동체에 기반한 대안을 제시  
Fair travel promotes equitable standards and fair practices in tourism and encourages local, community-based alternatives to the more exploitative and environmentally devastating elements of the industry. It focuses in particular on travel to the Third World from the First World.
- 현재의 여행관행이 여행지의 생존이나 문화 및 환경을 착취 혹은 파괴하는 경향이 있음을 비판  
Implicit (and often explicit) in fair travel literature is a criticism of the current models of international travel as being unfair and unsustainable. Advocates of fair travel practices argue that conventional tourism unfairly subverts the interests of communities and the environment to the desires of tourists themselves, and that too often, tourism-based economies exploit workers and harm the environment while enriching only a small segment of the population.
- 공정여행은 여행지와 여행자간의 균형을 추구(권력, 돈, 주장 등에서)  
Fair travel is an attempt to redress this balance. It promotes alternative methods of travel that work in cooperation with and in the best interest of destination communities, and strives for equity between travellers and hosts in terms of power, finances, and vo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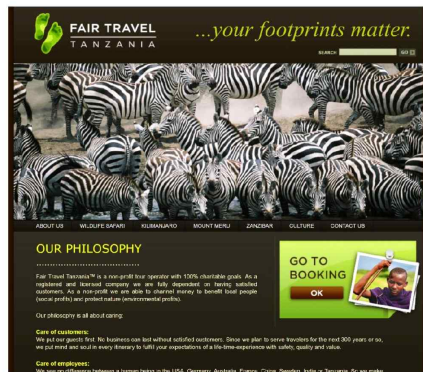
11

## 연관 개념들

- 책임여행(responsible tourism)
- 생태여행(eco tourism)
- 지속가능여행(sustainable tourism)
- 봉사여행(voluntourism)
- 지구여행(geogourism)
- 지역사회기반여행(communitiy based tourism)
- 현지인 생활 여행(travel like locals)

12

## 공정여행사 사례: Fair Travel Tanzan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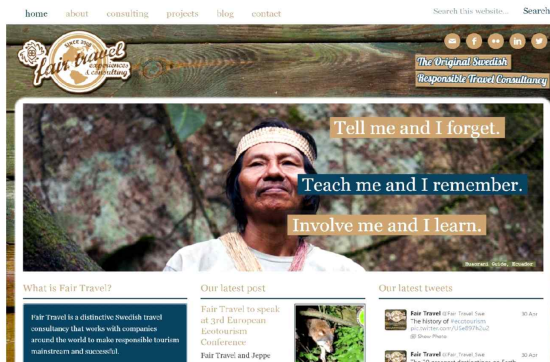
<http://www.fairtravel.com/>

공정성의 적용

- 여행객에 대한 관심
- 직원들에 대한 관심
- 환경에 대한 관심
-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13

## 공정여행사 사례: Fair Travel Sweden



<http://fair-travel.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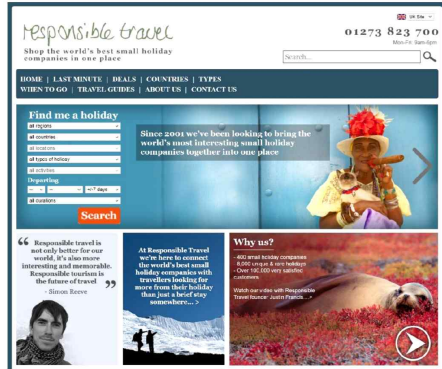
활동 영역

- 환경, 사람, 자연을 배려하는 여행 홍보 확산
- 공정여행관련 컨설팅, 교육, 네트워킹 활동 수행
- 국제개발, 공정여행, 지속가능관광, 지역개발 등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
- 가이아나 밀림 여행 상품 운영

14



## 공정여행사 사례: Responsible Travel



<http://www.responsibletravel.com/>

- 2001년 여행을 좋아하던 Justine Francis와 Harold Goodwin 교수가 Anita Roddick의 Bodyshop에서 보여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점의 영향으로 해외여행에도 적용해볼 수 있어 출발
- 전세계 197개국의 소규모 현지여행사를 연계하여 여행상품 중개
- 여행지의 환경과 지역사회를 배려하는 여행 스타일을 추구
- 조직
  - CEO, 부장(Directors), 고객관리(Customer Service), 회계(Account managers), 현지협력(Destination partnerships), 마케팅(Marketing), 작가(Writers), 출판홍보(Publishing team), 재무(Finance)
- 세계책임여행상(World Responsible Tourism Award) 운영

15

## 공감만세의 공정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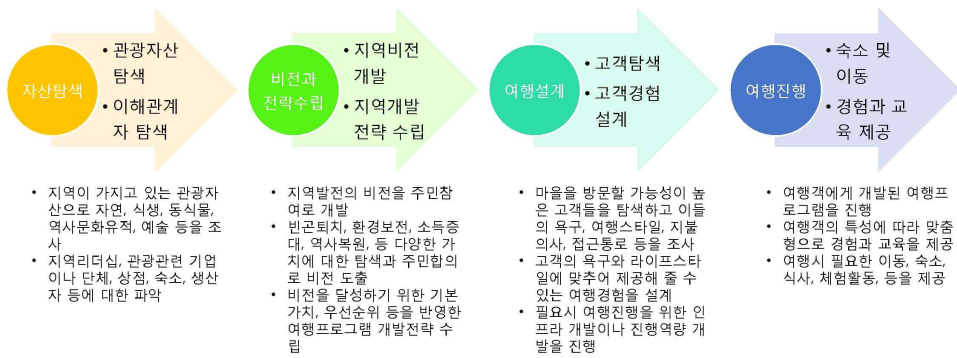


**공정함에 감동한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  
세상을 바꾸는 즐거운 선택, 공정여행!**

20대 청년들이 지역에서 의기투합하여 만든 사회적기업 공감만세.  
지역마다 10개의 단체와 함께 공정여행 공동체를 구성, 6개월 간 10회의 답사 100회의 회의를 통해 공정여행 상품 하나를 만들어 냈습니다.  
여행 상품 매출의 90% 지역사회 환원, 이익의 10% 환경단체 기부, 10명의 원주민을 직간접적으로 고용합니다.  
10명의 사람이 여행을 할 때, 1명의 저소득층 아이에게 공정여행을 제공하고, 이런 시도들을 통해 세상의 변화와 혁신이 가능하리라 생각하는, 우리는 청년 여행 사회적기업, 공감만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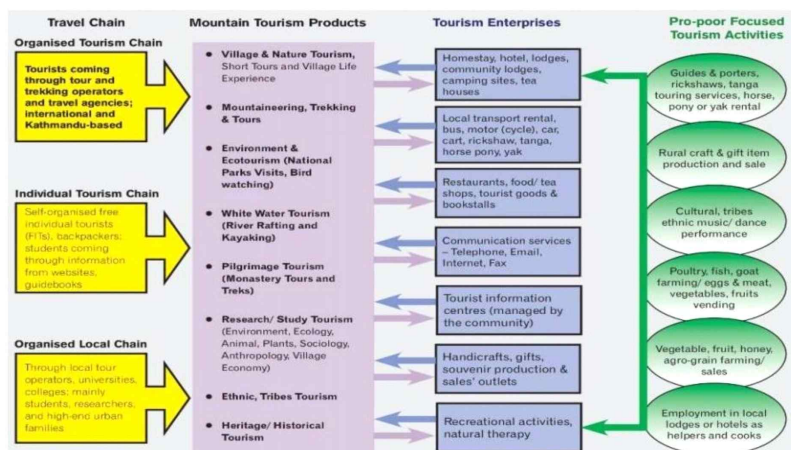
16

## 공정여행 개발과정



17

## 여행 트렌드 대응하는 여행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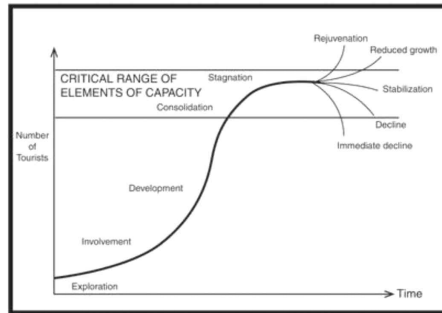
18



## 여행의 흥망성쇠와 조절

- 여행객의 변화에 따른 여행산업의 흥망성쇠가 나타남
- 탐험-개입-개발-성숙-쇠퇴의 순환과정 발생
- 지속가능한 여행개발을 위한 조절이 필수
  - 속도(개발 속도의 조절)
  - 규모(여행객의 수 조절)
  - 범위(여행 지역의 범위 조절)
  - 영역(여행가능 콘텐츠 조절)
- 현 단계에 적합한 공정여행 프로그램 개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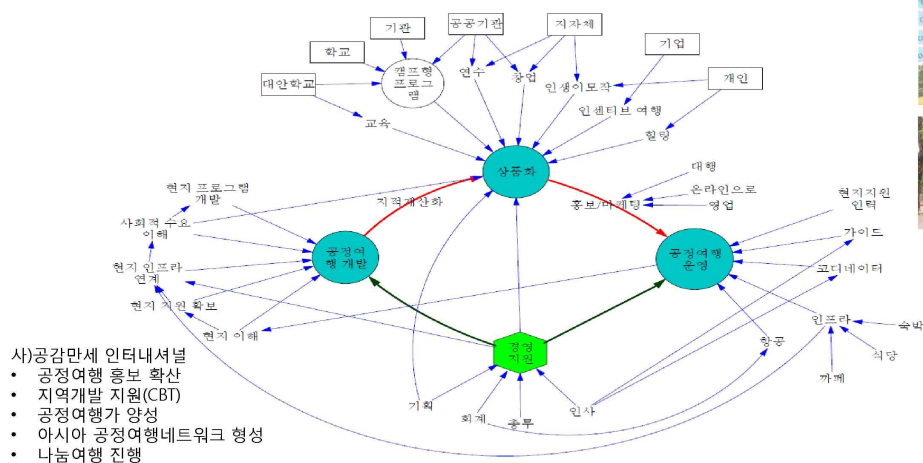
TOURISM LIFECYCLE



Butler, R. W. (1980). The concept of a tourist area cycle of evolution: implications for management of resources. The Canadian Geographical Journal, 103, 5-12.

19

## 공감만세 운영 모델



20

## 공감만세 여행 모델: 교육경험으로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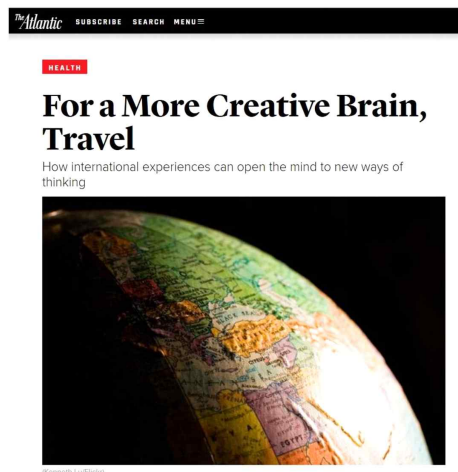
- 자기와 세계를 배우는 여행
- 자기
  - 내면세계: 정서와 가치
  - 역량: 지식과 기술
- 세계
  - 사람과 사회: 타인, 공동체, 사회구조와 문화
  - 자연과 세계: 역사 철학 종교와 자연(nature) 환경(environment)

21

## 교육으로서 여행 효과

- 해외여행 경험이 창의적으로 만든다.
  - 유명작가 사례: 헤밍웨이, 올더스 헉슬리, 마크 트웨인 등
- Adam Galinsky: 해외여행의 효과
  - 인지의 유연성, 깊이, 사고의 통합성에 영향을 준다
  - 단순한 해외여행이 아니라 다른 문화에 깊이 관여하는 경험  
이 중요
  - 해외체류기간이 길수록, 체류국가수가 적당히 많을 수록, 문  
화의 차이가 클수록 창의적 (관여깊이가 중요)
- Mary Helen Immordino-Yang: 자아발전에 기여
  - 다른 문화사람들과 상호교류를 통해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차별화시키는 능력을 개발
- 보편적 인류애에 대한 신념이나 신뢰를 증진
  - 이러한 신뢰가 창의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The Atlantic, March 31,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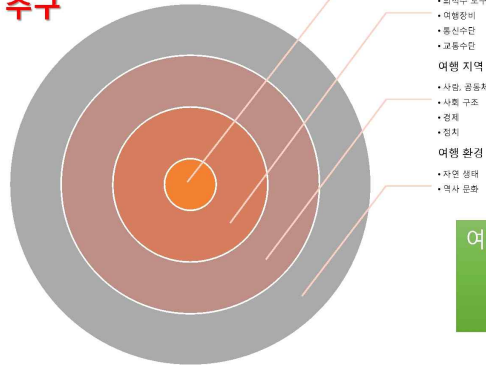


22

## 여행의 필수 요소들

### 여행의 성숙: 공정여행

- 관심 범위의 확대
- 요소들간 균형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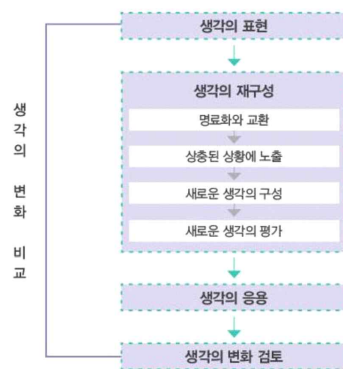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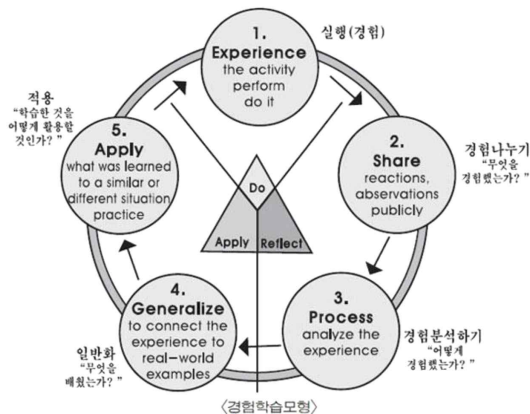
자기중심=통제가능

세계 중심=통제 불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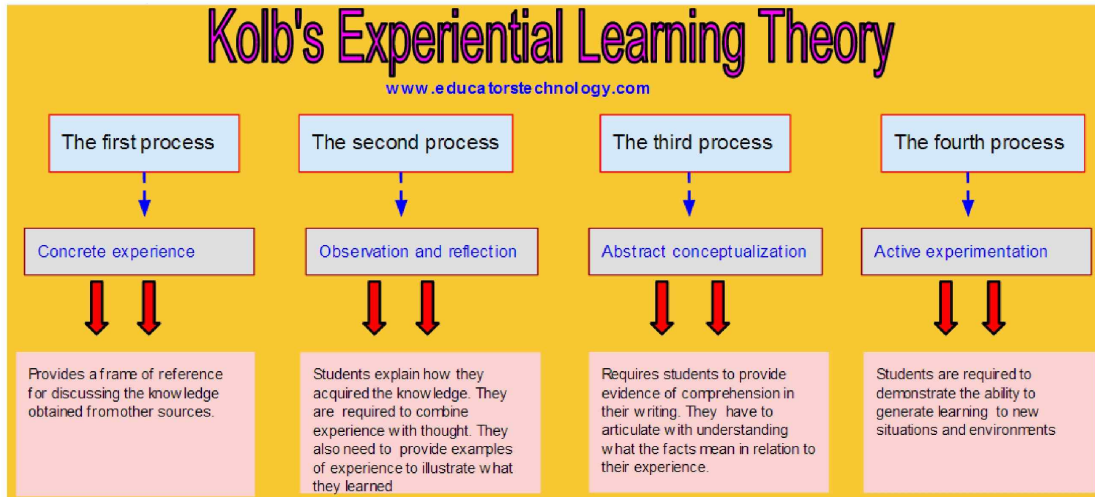
여행을 통한 학습:  
자신으로 부터 시작해서  
세계로 인식과 경험을  
확장해나가는 체험

23

## 경험학습(Experiential Lear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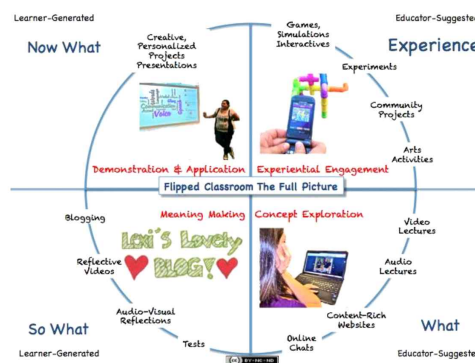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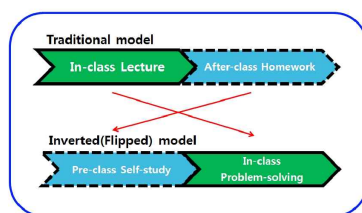
24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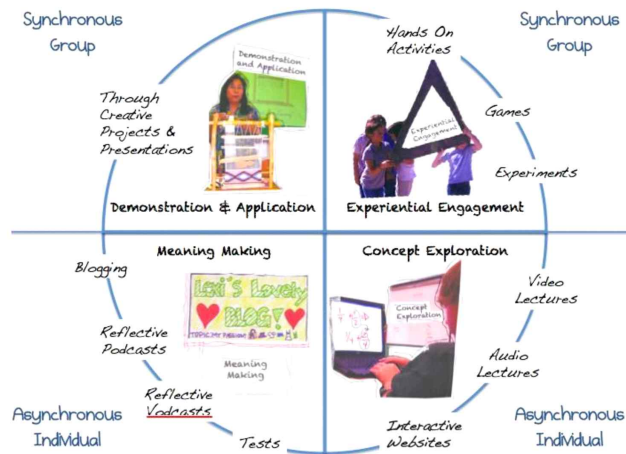
## 역전 학습(Flipped Learning)

- 현장 먼저
- 학습자 먼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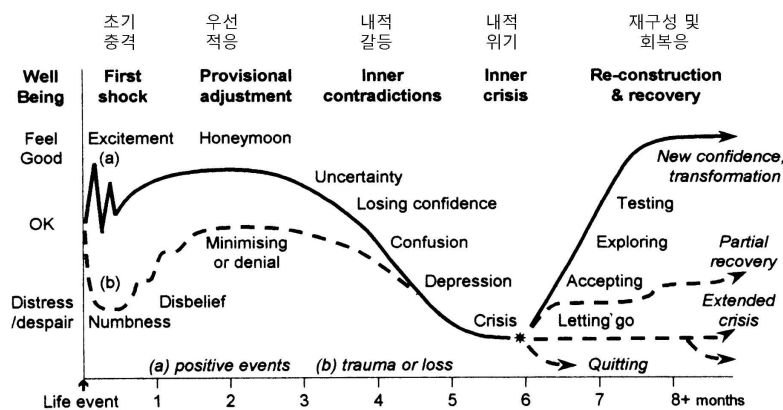
26

## 협동학습(collaborative lear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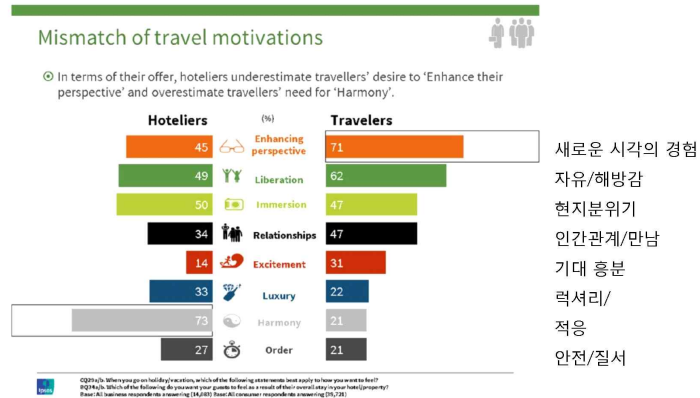
27

## 여행경험에서 변화 과정: 심리행태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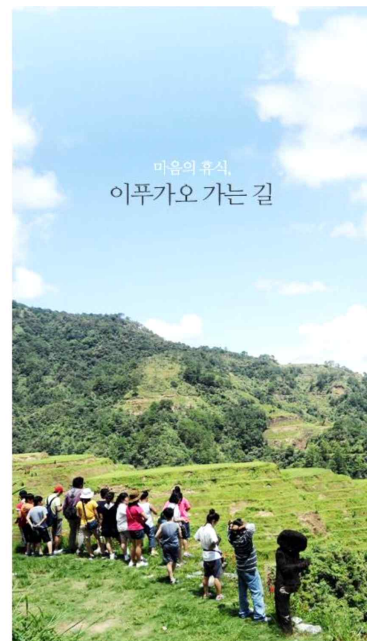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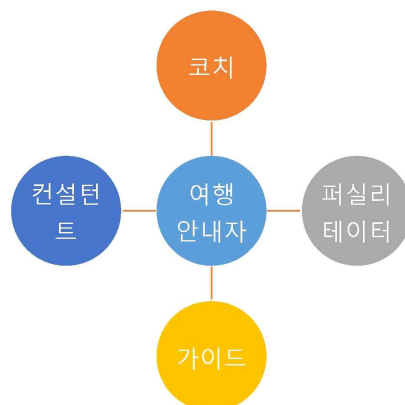
28

## 여행객과 여행사간의 미스매치



29

## 여행 코디네이터



30



## Big Six

1. a professor who made them excited about learning  
배우는 것에 대하여 흥미를 갖게 하는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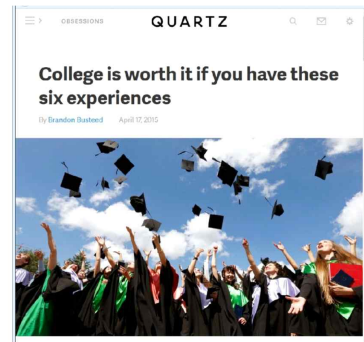
2. professors who cared about them as a person  
사람으로 돌봐주는 교수집단

3. a mentor who encouraged them to pursue their goals and dreams  
목표와 이상을 추구하도록 격려하는 멘토

4. worked on a long-term project  
장기적 프로젝트를 수행해보는 것

5. had a job or internship where they applied what they were learning  
배운 것을 적용해볼 수 있는 일자리나 인턴십을 해보는 것

6. were extremely involved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수업외의 활동에 미쳐보는 것



31



32